

2019년 3월 20일

KIWOOM DAILY ISSU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Quant Analyst 최길수 02) 3787-5294 gilsu@kiwoom.com
RA 최재원 02) 3787-0331 cjw5056@kiwoom.com

KOSPI, 업종별 기업이익 현황

기업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 중

코스피 기업에 대한 애널리스트 이익전망(12M Forward 기준, 영업이익)은 2018년 8월 초 228.6조 원까지 상승하였고 당시 코스피 지수는 2,300pt를 상회했다. 그러나 IT 업종 이익전망 하향 조정 이후 코스피 기업들의 전망치 하향 조정은 계속되었고, 현재 영업이익 전망치는 177조 원까지 하향되었다.

2018년 외국인들은 기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시작된 이후 9월 한달 동안 2,975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10월에는 약 4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코스피의 하락을 가속화했다. 특히 반도체 업종에서 9월과 10월에 각각 1.3조와 1.2조 원을 순매도하였다. 하지만 다시 지난 1월 반도체 업종에서 3.4조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피 주가지수 및 영업이익(Fwd. 12M) 추이



자료: Wisefn,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업종별 차별화는 보다 강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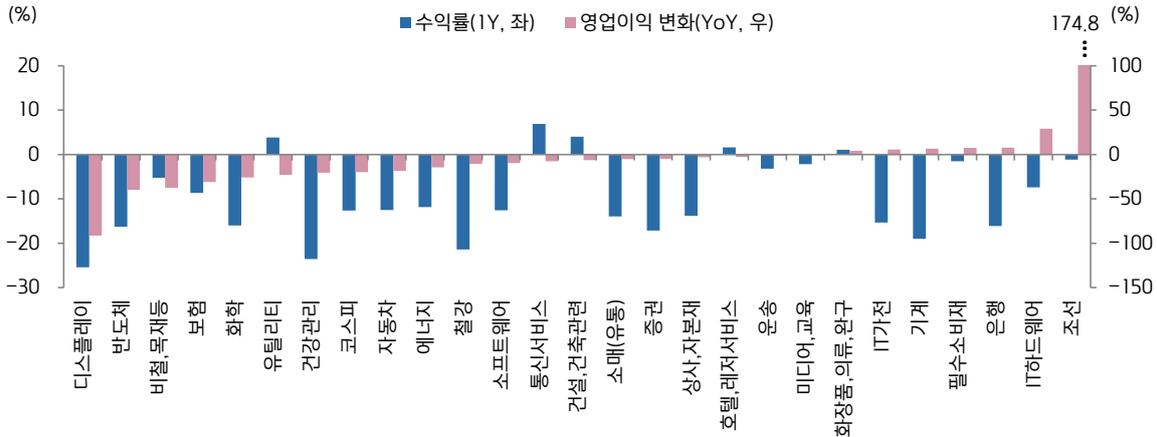
전년도 대비 영업이익 하향 조정 폭이 가장 큰 업종은 디스플레이(-91.26%)와 반도체(-39.72%)이다. 수익률 또한 각각 -25.39%, -16.30%로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반면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된 업종은 조선(+174.88%), IT하드웨어(+29.16%), 은행(+7.85), 필수소비재(+7.45%), 기계(+6.47%), IT가전(+5.64%), 화장품의류(+4.26%)였다. 특히 화장품의류(1.09%), 조선(-1.16%), 필수소비재(-1.54%) 업종은 전년 대비 12.61% 하락한 코스피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보였다.

최근 1개월과 3개월 기준 영업이익 변화를 살펴보면 현 시장의 업종별 차별화 모습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낮은 수익률과 함께 이익전망 하향조정이 일어났던 디스플레이의 경우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며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들 또한 3월 한달 동안 약 5,900억 원 순매도하는 등 수급적 측면에서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실적개선과 함께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시현중인 또 다른 업종들은 화장품의류(11.47%), 디스플레이(3.60%), 소프트웨어(3.02%), 필수소비재(4.77%), 유틸리티(2.32%) 등이다.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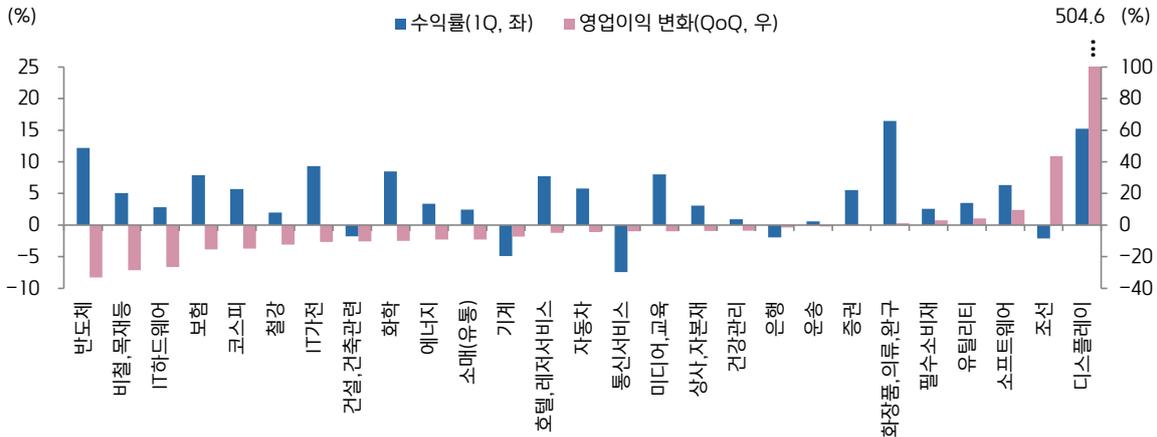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및 영업이익의 변화(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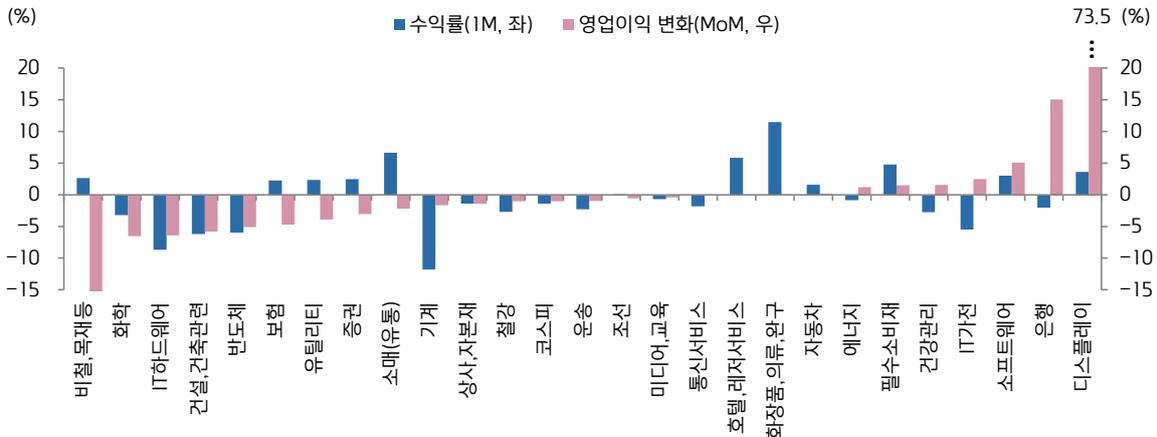
자료: Wisefn,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및 영업이익의 변화(QoQ)



자료: Wisefn,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및 영업이익의 변화(MoM)



자료: Wisefn, 키움증권 리서치센터